1분기 경제성장률 1.0%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가 성장 견인… 설비투자도 늘어
정부소비, 크게 늘어 전기比 2.2%… 민간소비는 0.7%
한은 "4월 이후 지표 봐도 성장세 여전히 양호해"
실질 국민총소득(GNI) 1.3% 증가… 교역조건 개선 영향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했다. 1%대 성장률을 유지한 만큼 양호한 성장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건설업 둔화, 고용 침체 등 성장세를 위협하는 불안요인도 많아 올해 3%대 성장률 달성 여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 1~3월까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0.2%) 이후 1분기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1.1%)보다는 0.1%p 하향 수정됐다.

민간소비가 속보치보다 0.1%p 상승한 반면 건설투자가 1.0%p 줄고, 설비투자가 1.8%p 하락하며 영향을 미쳤다.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2·3·4분기) 분기별로 평균 0.82~0.88%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0.9~1.0%를 나타내야 한다.

1분기 성장은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세가 견인했다. 수출은 반도체,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4.4%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1.8%p를 나타냈다. 수출 증가의 영향으로 설비투자도 전분기보다 3.4%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2분기(4.3%) 이후 3분기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투자도 1.8% 증가해 지난해 1분기(4.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내수도 다소 뒷받침됐다. 특히 정부소비가 크게 늘었다. 전분기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012년 1분기(2.8%)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가계소비는 4월 발표 때보다는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0.7%의 상승율에 그쳐 지난해 1분기(0.5%)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종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는 0.7%p를 차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전분기보다 1.6% 성장했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2.1%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1% 올라 지난 2013년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0.8%)의 부진에도 금융 및 보험(3.7%), 부동산 및 임대(2.6%) 등은 호조를 나타내며 업종별 격차를 보였다.

한은은 성장세가 여전히 견실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영태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은 "전분기대비 1.0%의 성장률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며 "1분기 이후 4~5월 새로운 지표를 봐도 (성장세가)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4월 제조업 생산과 건설기성이 전월대비 증가로 전환하고, 수출물량지수와 통관실적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소되면서 입국자수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도·소매업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3% 증가했다. 1분기 국외순수취요소 소득이 1.3% 감소했으나 교역조건 개선된 영향이 컸다.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총저축률은 34.9%로 전분기보다 0.8%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2년3개월만에 최저 수준이다. 최종소비지출(1.4%)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0.2%)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 총투자율은 전기대비 0.4%p 하락한 31.4%를 기록했다.

/김영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지난달 30일 군산시 소재 새만금 묘목장에서 안내조형물을 설치했다.

탄소흡수량 증대 안내조형물 설치

새만금 농어촌공… 온실가스 흡수원 증진 목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심현섭)은 지난 4월 국내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 1호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새만금 방풍림(5공구)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사업'과 관련 지난달 30일 군산시 소재 새만금 묘목장에서 안내조형물 설치 행사를 가졌다.

국내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호 외부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굴된 사업으로 기계획된 새만금 방풍림(5공구) 조성계획을 연구하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이다.

이번 설치한 조형물은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림부문 1호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작·설치해 주었으며, 새만금 묘목장내에 가설치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향후 5공구 식재 완료 후 적합한 장소에 영구 설치 예정이다.

본 사업은 새만금 농업용지(5공구) 17ha에 해송, 메타세콰이어 등 8종, 약 16만1549본을 신규조림(식재)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용지의 해풍 피해 방지, 비산먼지 및 비염 등의 재해방지와 더불어 산림자원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원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예금 특판 연 최고 2.4% 금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온라인 전용상품인 'JB다이렉트 예금 특판'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예금 특판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판매하며, 금액은 100만원 이상~10억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상품은 1년제 예금으로 금리는 최고 연 2.4%이며 판매 한도는 1000억원이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은 가입한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전북은행은 이번 특판은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저금리 시대에 힘이 되는 착한 금리로 특판 예금을 판매하고자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한마음 체육대회 아동 돕기 성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주시에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들을 돕기 위해 성금 2787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성금은 지난달 26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북은행 2018년 JB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를 기념하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이다.

이와 관련 JB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2015년 실시된 이후 3년 만에 노·사가 공동으로 치른 행사로, 전북은행 임직원은 물론 전북은행 출신 금융지주 임직원, 전은산업 임직원 등 14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성금 기탁과 함께 명랑 운동회와 장기자랑, 경품권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소통과 단결의 장을 마련했다.

/김영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국내 이통사, 요금제 개편 본격화

KT 'LTE 베이직 요금제', 단기적으로 매출 악영향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보유 이통사로 이동가능성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저가 요금제 출시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단기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도 이들이 고객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까닭은 최근 고객들의 모바일 이용행태가 동영상 위주로 변화한 것을 고려하는 한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 추진 방향에도 발 맞추기 위한 데 있다.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요금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KT는 지난 30일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 1GB를 주는 저가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가격에 데이터 1GB와 무제한 음성통화를 제공한다. 선택약정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가입자 기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를 의무적으로 출시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 출시에 따른 매출 하락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영업이익 60%가 사라지는 등 손실폭이 증가하면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런 가운데 KT가 선제적으로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LTE 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하자 일각에선 SK텔레콤이 추산한 실적 하락이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초기에는 매출이 많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점차 고객들의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정도에는 수익이나 매출 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T는 30일 'LTE 베이직'과 함께 월 8만원대에 데이터를 속도 제한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ON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8만9000원에 데이터 제공량 및 속도제어가 전혀 없는 완전 무제한 혜택을 제공한다. 속도제어가 없는 만큼 UHD(초고화질)급 영상을 즐기는 이용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태 기자

LG유플러스가 골프중계서비스 'U+골프'를 SK텔레콤, KT 고객에게 오픈한다.

LGU+, 6월 한달간 'U+골프' SKT·KT 고객에도 오픈

LG유플러스는 골프중계서비스 'U+골프'를 지난 1일부터 한달 동안 SK텔레콤, KT 고객에게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KT 고객도 이날부터 구글스토어, 원스토어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마켓에서 U+골프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달 30일까지 U+골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위해 U+골프 체험용 앱을 별도로 제작했다. 체험용 앱을 통하면 U+골프가 제공하는 ▲인기선수 독점중계 ▲출전선수 스윙보기 ▲지난 홀 다시보기 ▲TV로 크게 보기 등 4대 핵심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